

시선

사설

결국엔 소통이다

불통으로 인한 웃지 못 할 촌극이 학내에서 다시 벌어졌다. 서울캠퍼스 삼의원 기숙사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삼의원은 지난 11일 여름방학 전원 퇴사와 이후 내국인 입사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지를 내걸었다.

총학생회와 삼의원 사생으로 구성된 자치회는 삼의원의 일방적인 통보를 '삼의원 사태'라 명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캠퍼스 한글판 부총장은 지난 15일 총학생회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충분한 소통 없이 검토 중인 사안이 전달되어 오해와 혼란을 드리게 됐다'고 전했다.

또 다시 소통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사회는 불통의 시대를 넘어 소통의 시대를 맞이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모습이다. 그러나 학내는 여전히 불통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주거'라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말이다.

우리신문은 그간 수차례 소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몇 번을 지적해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 몇 번을 지적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다. 가깝게는 구성원조차 외부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했던 미래창조스쿨이 그러했고 사업계획서 유출 방지를 이유로 구체적인 공개의 거부를 꺼렸던 프라임사업이 그러했다. 지금은 완료를 앞두고 있는 Space21 사업 역시 길고 힘든 시기를 거쳤다.

그래서 구태여 소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다. 소통이란, 1.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합, 2.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번 삼의원 사태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모두 빛나거나 발생한 일이다. 새로운 기숙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 기숙사와 신축 기숙사의 운영에 대한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문제는 '논의의 과정'이다.

학교는 이를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총장의 답변에서도 읽을 수 있듯 학교는 모종의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 실제로 기숙사에 입사할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설령, 삼의원 공지가 모든 논의를 끝내고 확정된 일이라 가정하더라도 더더욱 수긍하기 어려워진다. 방학을 한 달 남짓 남기고 전원 퇴사와 2학기 입사 불가를 전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학교의 소통 의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리라 생각했던 말인가. 만약 공지를 소통의 시작으로 생각했다면 이는 오산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조차 하지 않은 통보의 어디에서 소통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렇게 봉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익숙한 장면이다. 불통을 지적받아야 소통에 나선다. 반복되는 과거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대학 본부에게 구성원은 믿음을 보낼 수 없다. 하물며 신축 기숙사의 건립과 함께 부족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른 시점인 만큼 '삼의원 사태'는 더더욱 실망을 안긴다.

학교는 빠른 대응을 보였지만 이를 현 시점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새로이 구성될 협의체 안에서 원만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리고 소통의 결과로 다수의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세계 휩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우리학교 빠른 대처로 피해 없어

미디어 여론동향 2017. 5. 15 ~ 5. 28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전 세계적으로 20만 대 이상의 PC를 감염시키며 피해를 확산 중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가 국내에 상륙했지만 다행히 우리학교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우리학교, 빠른 대처로 "랜섬웨어 피해 아직 없다"/대학주보 온라인, 2017.5.16) 정보지원처는 지난 14일 이메일을 통해 교직원에게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전달했다. 현재 양 캠퍼스 보안 방화벽을 통해 일부 랜섬웨어는 자동으로 차단되고 있다. 이번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주공격 대상은 윈도우XP가 설치된 PC로, 양 캠퍼스에 등록된 비품 PC 약 16,000대는 지난 2013년 윈도우XP 지원 종료와 함께 윈도우 버전 업

만평



이 주의 주제 - 국가지원 사업

'소통'과 '실행'의 조화로 나아가는 미래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총 360억 원. 우리학교가 올해 상반기에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지원받게 된 결과물이다. 그동안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에이스사업 등 여러 국고 지원 사업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어째서인지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옮기는 데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간 탈락 속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던 것일까. SW 중심대학 선정에 이어 링크플러스 사업, 그리고 공과대학 혁신 사업까지 연달아 사업에 선정됐다.

연이는 사업 선정의 비결은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 속에 있었다. 링크플러스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학교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던 현장에서부터 평가단의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그만큼 야심차게, 지난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만들어진 계획들로 꾸려진 탓일 테다. 사업 계획서를 받아 검토하다보니, 계획대로 실행만 된다면 그야말로 '대박'일 것들이 많다. KHU-Valley 프로그램, KHU SW 부트캠프, 글로벌혁신센터구축 등과 같이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에 앞서, 계획한 사업을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먼저 SW 중심대학 사업과 링크플러스

사업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연장과 지원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중간 평가에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일정 수준의 결과를 내야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큰 액수의 지원금이 달려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을 건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선정의 기쁨에만 젖어 있으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수많은 계획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교수, 학생, 교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계획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사업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끼리,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사업을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하고 많은 사업의 목적인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은 결국 학생들에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취업' 문제다.

이번 사업 선정은 앞으로의 위한 발판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이번에 어떻게 사업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가 점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범하게 될 사업단은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와 함께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하고 협의하는 일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난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를 돌아보면 '통보식 의사결정'에서 온 소모는 너무도 컸다. 이번에는 '소통'과 '실행'의 조화를 통해 과제를 멀지게 완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데이트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랜섬웨어는 종류가 다양하고 한 번 감염되면 자료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지원처는 윈도우10 이하 버전을 사용하는 PC의 빠른 보안 업데이트와 중요 자료 백업을 당부했다.

지난 17일, 평화의전당에서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7년 정기연주회'가 열렸다.(음악대학 경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 열려/대학주보 온라인, 2017.5.18) 음악대학 강석희(기악과) 교수의 지휘 아래 진행된 이번 연주회에서 R. 슈트라우스의 <돈 주양 Op. 20>, E. 쇼송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곡 E♭장조 Op. 25>, J. 브람스의 <교향곡 No. 1, c minor Op. 68>이 연주됐다. 1955년 창단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기악과 재학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25일에는 제48회 작은 음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선 통학생의 서러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자가용으로 30분 거리인데 왜 통학만 하면 왕복 세 시간이 되는 걸까' (#경희숲_21733, 2017.5.17)라는 글의 글쓴이는 '다음 학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기숙사 들어간다'라고 통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257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5500-1번을 타면 강제로 용인 투어를 할 수 있지', '인천에서 통학할 때 편도 최대 4시간까지 걸려겠습니다. 인천에서 부산 가는데도 다섯 시간이면 되는데', '이게 진짜 내 이야기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교육부의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 사업'에 우리학교가 위탁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경희 이공계 역량, 아세안 국가에 전수한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5.24) 아세안 국가 대학생을 초청, 국내 우수 대학의 이공계 학문과 산업 발전 모델을 체험하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우리학교는 총 7천 5백

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우리학교는 이미 학업성적, 전공지식과 연구계획서, 화상면접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총 24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7월 10일부터 한 달간 국제캠퍼스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기계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사회시스템기반공학과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연수 교육과정을 통해 연수생들은 융합형 실무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며,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도 이뤄질 예정이다.

축제의 함성에 묻힌

서러운 눈물

세시봉

양윤혁 (국제뉴스팀장)



#1. 즐거운 대동제였다. 이벤트로 손님을 호객하는 목소리는 열정적이었고, 음악 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대동제를 누비며 찍는 사진에는 찾아온 연예인에 환호하는 풍경도 친구와 함께 어깨동무하는 모습도 담겼다. 그러나 어두운 구석에서 들리지 않는 울음 소리가, 보이지 않는 눈물도 함께였다. 이제 대동제의 꽃이 된 '주점'을 운영하는 학생들을 향한 성희롱 탓이었다.

#2. 주점의 대다수 풍경은 즐거움이다. 대동제에서 가장 주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만큼 주요한 교류의 장이 됐다. 자주 만나기 어려운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교수님들도 제자들과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고, 서로 건네는 짓궂은 농담에 웃는다. 대부분에게 기억되는 주점 행사는 이렇다고 믿는다.

#3. 주점의 운영을 도맡는 학생회 집행부와 신입생 중에는 이런 행복한 경험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축제기간 동안 여러 주점을 돌아다니며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 운영진들과 손님들을 붙잡고 물었다. "주점행사를 진행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대답은 "몸은 고되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다"였다.

하지만 다음 질문에는 다들 머뭇했다. "이번 주점에서 손님들의 성희롱이나, 불쾌한 경험은 없으셨나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을 피하거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답을 피하던 이들은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은 친구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잠깐 앉아서 술 한 잔 해요", "저 몇 살로 보여요?" 누군가 단순히 술기운에 던진 말이라지만, 또 듣는 누군가는 그늘에서 서럽게 우는 풍경이 올해 대동제에서도 있었다.

#4. 사람들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가면을 쓴다. 심리학에선 이를 '페르소나'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동생이면서 선배이고 자식이자 연인이 된다. 일상에서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던 '학우'들은 축제기간 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에 도취해 '현탕', '번호 따기'나 '어떻게 한 번 만나볼' 대상으로 인지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축제의 함성 속에서 누군가의 울음은 묻혀버리고 만다.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일탈로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달래지 못한 누군가의 상처는 대물림돼왔다. 크게 어울려 환합한다는 대동제의 시끌벅적함 속에 묻혀 누군가의 울음소리는 너무도 작았다. 마냥 울음을 터뜨리게 만든 사람들은 마저 일행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이 돼서야 돌아갔을 테다. 울음을 터뜨린 학생은 남들이 없는 구석에서 소리를 참으며 울었거나, 옆에서 동료 한 명은 분한 마음을 참고 우는 그 친구를 위로했을 것이다.

축제기간의 불화는 대다수의 즐거움 속에 숨어 있다. 축제를 맞는 우리와 우리의 주변 모두가, 숨어서 울고 있는 사람 없이 온전히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기대해본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희대학교 1733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